

언론동향(11. 18.)

《언론보도 목차》

1. (기호일보) 경기 청소년 메타버스로 문화탐방 2
2. (가톨릭신문) DMZ 국제 청년 평화순례 3
3. (프레시안) 다시 열린, ‘DMZ 평화의길’ 힐링을 예약하세요 5

경기 청소년 메타버스로 문화탐방

도 문화재단 총 200여 명 대상 문화다양성 강의 선착순 모집

경기문화재단이 전국 최대 다문화지역인 경기도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문화탐방을 진행한다.

도내 청소년들의 문화다양성 이해 증진을 위해 기획된 이번 행사는 초·중·고·대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총 200여 명을 오는 12월 2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행사는 코로나19를 감안,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12월 4일, 5일, 11일, 12일 중 신청한 날짜에 온라인에 접속하면 문화탐방에 참여할 수 있다.

▶북부(연천 전곡선사박물관, 파주 임진각, 김포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동부(광주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 이천 국립이천호국원, 남양주 다산생태공원, 실학박물관) ▶서·남부(용인 경기도박물관,

화성 매향리 평화역사관, 수원 경기상상캠퍼스)로 구분된 경기도 문화가치 및 문화다양성 탐방 영상을 선택하면 실내에서의 안보·평화·생태환경을 즐기게 된다.

문화다양성 강의는 전문가 편과 유명인사 편으로 구성, 우리 사회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담론을 쉽고 재미있게 접하도록 기획했다. 온라인 행사 중간 참여자 대상 행사를 진행해 소정의 경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문화재단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 증진을 통해 미래를 이끄는 문화시민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팬데믹 상황에서 온라인 간접경험을 통해서라도 우리 주변의 문화시설을 둘러보고 경기도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행사 참가를 원하는 청소년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ggcf.kr)를 참고하면 된다. 백창현 기자 bch@kihoilbo.co.kr

DMZ 국제 청년 평화순례

철조망 너머 분단 현실 바라보며 '평화' 기도

해파랑길과 철원 노동당사 등 전쟁 상흔 생생한 곳 찾아

발행일 | 2021-11-21 [제3270호, 1면]



이 기사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용 신문 보내기 후원



2021년 평화의 바람 참가자들이 11월 15일 강원도 고성 해안철책을 손으로 만져 보고 있다.

한반도 통일과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2021 세계 평화의 바람, DMZ 국제 청년 평화순례'(이하 평화의 바람)가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위원장 정세덕 신부) 주관으로 11월 15~19일 남북 분단 현장인 강원도 고성, 양구, 경기도 파주 등 최전방 일대에서 열렸다.

올해 평화의 바람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1일차(15일)부터 5일차(19일)까지 각 날짜별로 평균 4명씩 조를 이뤄 해당 날짜에만 조별로 당일 순례를 실시했으며 참가자는 총 20명이었다.

정세덕 신부는 평화의 바람이 예년에 비해 소규모로 진행된 것과 관련해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청년들에게 중요한 것은 스스로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한 번이라도 고민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평화의 바람 순례지는 고성 DMZ박물관과 해파랑길, 철원 노동당사, DMZ생태평화공원 등 모두 분단의 비극과 6·25전쟁의 상흔이 생생히 남아 있는 곳이다. 순례 참가자들은 한반도 역사의 아픔을 직접 보고 그 현장을 걸으며 막연하게 느끼던 한반도 통일과 세계 평화 실현의 당위성을 깨달을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1일차 참가자 대표 태희준(보니파시오·29·서울 상도동본당)씨는 “참가가 거듭될수록 느끼고 배우는 것이 새로워진다”며 “이번에는 내 안의 평화, 나와 하느님과의 화해, 자연과의 일치에서 평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평화의 바람에 처음 참가한 김한솔(라파엘라·29·서울 가양동본당)씨는 순례를 마친 뒤 “분단 현실을 실제로 체험하니 남북통일을 더욱 기도하게 된다”고 밝혔다.

프레이션

평화누리길 예술작품 공모전 '하나의 빛' 등 3개 작품 우수작 선정

전승표 기자 | 기사입력 2021.11.18. 09:18:56

평화누리길에 꾸며질 예술작품의 공모전에서 '하나의 빛', '평화의 메아리', 'SHARP_꿈(평화를 꿈꾸다)' 등 3개 작품이 최종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평화누리길 예술작품 공모전' 시상식을 지난 17일 파주 DMZ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평화누리길 예술작품 공모전 시상식 현장. ©경기도

이번 공모전은 DMZ 일원의 평화누리길 내 야간 조명 또는 상징 이미지가 필요한 곳의 경관 개선을 목적으로 청년 예술가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는 '청년 예술가가 바라보는 한반도의 평화'를 주제로 지난 7월 1일부터 8월 13일까지 진행돼 총 17개의 아이디어가 응모됐다.

도는 1·2차 심사위원 평가를 거쳐 △강건 작가의 '하나의 빛' △김성필 작가의 '평화의 메아리' △김지연·김시찬 작가의 'SHARP_꿈(평화를 꿈꾸다)' 등 3개 작품을 최종 우수작으로 선정했다.

이들 입상 작가에게는 도지사상을 수여하고, 200만원의 상금과 2000만원의 제작지원금을 지급했다.



▲강선 작가의 '하나의 빛', 순경기도

강선 작가의 '하나의 빛'은 문화가 이뤄지기까지의 험난한 과정과 역사 속에서 살아남아 온 다양한 문화 유산, 문화 유산의 가치와 소중함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또한, 이 작품은 순경에서 처음으로 선보였다.



▲김승필 작가의 '미래의 빛', 순경기도

김승필 작가의 '미래의 빛'은 도시의 미래와 도시의 감각을 LED 빛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지하철 무빙워크의 움직임과 유사한 구조를 통해 순경에서 처음으로 선보였다.



▲김지연·김시찬작가의 'SHARP_꿈(평화를 꿈꾸다)'. ©경기도

김지연·김시찬 작가의 'SHARP_꿈(평화를 꿈꾸다)'은 이산가족이 상봉해 서로 얼싸안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분단을 넘어 다시 하나 되는 한반도를 잘 나타냈다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들 작품은 현재 고양 평화누리길 5코스 휴게공원, 파주 평화누리길 6코스 동패지하차도, 연천 평화누리길 12코스 종료 지점 역고드름에 각각 설치돼 관람객들을 맞고 있다.

김지연 작가는 “평화누리길을 걷다가 자연스럽게 작품을 마주하게 되면 평화와 통일에 대해 잠깐이라도 상상해보는 그런 경험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소감을 대신했다.

도 관계자는 “평화누리길에 관심을 갖고 우수한 작품을 출품한 모든 참가자에 감사드린다”며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평화누리길에 실현해 낼 수 있어 의미가 있었다. 이를 계기로 많은 도민들이 평화누리길을 찾아 특별한 추억을 쌓길 바란다”고 밝혔다.